



The First Asian Master of Wine

Jeannie Cho Lee



5코스 디너와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의 12가지 와인이 어울려 자아내는 환상적인 하모니를 즐기며, 저자 자신의 와인과 음식에 대한 식견을 함께 나누며 미식의 즐거움을 가져본 뜻 깊은 자리였다.

특히 이날은 지니 조 리가 지난해 5월 자신의 저서 '아시아인의 와인 마스터'와 '아시아의 맛, 음식과 와인' 한국어판(가산출판사) 홍보와 함께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의 바롤로Barolo 등 와인들을 소개하며 시음하는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MW는 와인업계에서는 최정상 자리로 전 세계에 280명 정도이다. 그래서 영국의 와인평론가詹士스 로빈슨은 회고록에서 "와인마스터 시험 과정은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서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엄격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지니 조 리는 1968년 한국에서 태어났다. 여섯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과 보스턴, 런던, 쿠팔라룸푸르 등 여러 도시에서 살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몸으로 익혔다.

2008년 9월,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영국 와인마스터협회Institute of Master of Wine, IMW 와인마스터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그녀는 미국 와인교육자협회와 영국 와인과 스피릿교육협회의 교육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녀는 1994년부터 홍콩에 거주하며 현재 홍콩전문대학에서 와인을 강의하고 있다. 또 국제 와인 심사관, 연사, 기고가, 교육자로서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동 중이다. 이러한 왕성한 활동으로 그녀는 2009년 와인업계에 대한 공로로 빈이탈리 상도 받았다.

이날 와인 페어링 디너에 앞서 소개된 2권의 저서 중 '아시아인의 와인 마스터'는 총체적이며, 독창적인 방식이 집약된 와인에 대한 체계적인 와인 학습을 토대로 한 한국인 와인 마스터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책이다. 그녀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산 경험과 프랑스 요리 과정, 영국에서의 와인 마스터 과정을 끝내고 오랫동안 국제적인 감각을 몸으로 익히면서, 서양의 술인 와인을 아시아의 언어로 해석한 책을 출판한 것은 그녀처럼 실력과 권위를 갖추지 않고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와인을 포도 품종별로 익히도록 고안한 이 책은 지금까지 와인을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생산지역으로 나누어 익히던 전통적 방식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주요 포도 품종과 토착 포도 품종별 특징, 포도 재배부터 와인의 품미, 와인 스타일,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분류, 테이스팅 요령과 라벨 읽기, 포도 품종, 포도 재배에서 시작해 와인글라스에 담겨지기까지 와인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의 맛, 음식과 와인'은 요즈음 서점에 홍수를 이루며 진열되어 있는 요리책의 범주를 완전히 뛰어 넘는다. 그녀는 "아시아 음식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점마다 맛이 달라진다"며, "아시아 고유의 음식과 어울리는, 아시아인을 위한 새로운 와인 매칭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시아 10개 주요 도시의 대표 음식을 소개하고 어떤 와인이 잘 매칭이 되는지 그녀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역자 박원숙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서구 모더니즘 문학이 한국 현대시에 미친 영향'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에서 10여 년 간 영어를 강의했다. 서울와인스쿨에서 소믈리에, 와인 마스터, 양조 과정을 마쳤다. 번역한 책으로 '와인 101'이 있다. **M**



‘아시아인의 와인 마스터’와 ‘아시아의 맛, 음식과 와인’ 한국어판 저자

지니 조 리의 특별한 와인과 미식의 만남

지난 해 12월 22일 한남동 하얏트 그랜드 서울 '더 파리스 그릴'에서 동양인 최초 '와인 마스터Master of Wine-MW'이자 르팡 미디어LE PAN MEDIA 대표이면서, 월간 르팡LE PAN 발행인으로 와인 칼럼니스트 및 교육자 그리고 세계 유명 와인대회 심사위원에 하버드 출신이라는 화려한 명성을 지닌 지니 조 리Jeannie Cho Lee(한국명 이지연)가 자신의 저서 한국어 번역판 출간을 기념하면서, 와인 시음회와 특별한 '와인 페어링 디너Wine Pairing Dinner'가 있었다.

글과 사진 전준호 기자